



연 세 대 학 교 총 여 학 생 회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 전화 2123-3645 / 담당 총여학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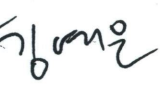
문서번호 : 총여학생회 제2013-03-01호

시행일자 : 2013. 3. 5.

발 신 :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수 신 : 연세대학교 학생처

제 목 : 여성의 날 행사 장소 협조 요청

결 재 랑	
총여학생회장	부총여학생회장
	

1. 연세대학교 교육환경을 위해 힘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3월 7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성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를 위해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의 사용 허가를 요청합니다.
3. 기획안을 첨부합니다. [첨부자료]

연 세 대 학 교 제 2 5 대 총 여 학 생 회 장



2013 여성의 날, The BE 정규직

1. '여성의 날'이란

세계 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은 매년 3월 8일로,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쉼기한 날을 기념하며 1975년 유엔에 의해 공식 지정됐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5천여 여성 노동자들은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먼저 자욱한 현장에서 하루 12~14시간씩 일해야 했으나, 여성들에게는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굶지 않기 위해 일하면서도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아야 했다.

1908년 3월 8일 전 의류노동자들의 시위는 결국 1910년 [의류노동자연합]이라는 조직을 탄생시켰고,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선정하여 1911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이후 여성들의 국제적인 연대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국에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남녀차별 철폐, 여성빈곤 타파 등 여성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해 2001년 현재까지 매년 3월 8일을 기해 세계적으로 기념대회가 이어져 왔다.

2. <2013 여성의 날, The BE 정규직> 기획 의도

1908년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이 그저 옛날 이야기일까? <2013 여성의 날, The BE 정규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3년 한국사회의 청년들에게 100여년 전과 유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하고자 한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인 '청년인턴제'는 정규직과 같이 주5일 8시간을 근무하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비율이 낮아 청년 비정규직을 재생산한다는 평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인턴이라는 스펙이 필요한 현실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은 '청년인턴제'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따라서 연세대학교 제25대 총여학생회는 여성의 날을 맞아 대학생들이 직면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알리고, 참여하는 캠페인 형식을 통해 청년이 바라는 청년인턴제,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3. 행사 내용

- 판넬을 통해 여성의 날의 의미와 청년들이 직면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알린다.
- 청년이 바라는 청년 인턴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어 붙이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 우리들의 이야기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한다.

4. 일정 및 장소

일시 : 2013년 3월 7일 (목) 11:00-16:00

장소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민주광장

5. 주최 및 주관

연세대학교 제25대 총여학생회